

지하건설 동부간선도로 장안교IC(Ramp) 설치 등 청원

심 사 보 고 서

청원 번호	50
----------	----

2022년 2월 14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월 14일, 김용상 외 2,208명

나. 소개의원 : 김인호 의원

다. 회부일자 : 2022년 1월 27일

라. 상정일자 : 제305회 임시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2년 2월 14일 상정, 채택)

2. 청원의 요지

가. 청원이유

- 현재 동부간선도로는 장안교 인접도로에서 장안교IC(Ramp)가 설치되어 있어 이용 중이나 건설 예정인 동부간선 지하도로의 건설계획에는 장안교IC(Ramp)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어 출·퇴근시간대 교통마비상태 등 문제 발생이 우려되므로 지하건설 예정인 동부간선도로에 장안교IC Ramp(진·출입로)설치를 청원함.

나. 주요내용

- 서울시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를 위한 기본설계중이며, 현재 장안교 인접도로에서 지상 동부간선도로 진출입 장안교 IC(Ramp)가 있어 이용 중 임에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기본설계 관련 주민설명회 내용 중에는 장안교IC(Ramp) 설치가 없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 그간 장안교 인접도로에서 동부간선도로로 이용했던 차량이 지하 건설 예정인 동부간선도로 진출입을 위해 중량IC(Ramp) 이용하게 될 경우 현재도 만성교통체증상태인 망우로, 한천로의 출·퇴근시간대 교통마비상태를 더 심각하게 하는 등의 문제 발생이 우려됨.
- 또한 동부간선지하도로와 GTX B노선의 시설간 간섭 검토 및 현 지상 중량IC 입구에 계획되어 있는 배연구 설치와 관련하여 주변 아파트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재검토가 필요함.

다. 청원소개의원견 요지(소개의원: 김인호 의원)

- 서울특별시에서는 강남북균형발전과 원활한 도로교통소통을 위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를 위한 기본설계 중이고, 관련법이 정한 행정절차에 따라 2021년 12월 15일(수요일) 휘경1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 기본설계 설명내용 중에 현재 장안교 인접도로에서 지상 동부간선도로 진출입 장안교IC(Ramp)가 있어 이용 중에 있는데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주민설명회 내용 중에는 장안교

IC(Ramp) 설치가 없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장안교 인접도로에서 지하건설 동부간선도로 장안교IC Ramp(진·출입로) 설치를 청원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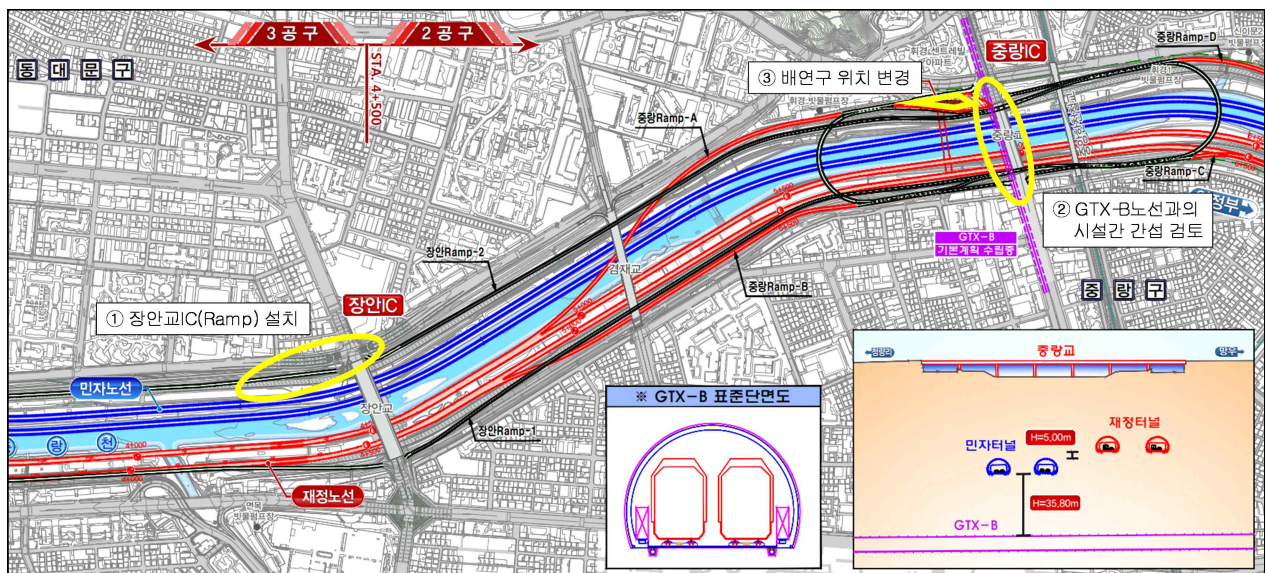
- 문제점 -

1. 주민설명회에서 기본설계대로 시공한다면 그간 장안교 인접도로에서 동부간선도로 이용했던 차량이, 지하 건설된 동부간선도로 진·출입을 위해서 중량IC(Ramp) 이용시는 현재도 만성교통체증상태인 망우로, 한천로의 출퇴근시간대 교통소통은 마비상태가 될 것이고, 강남북간 균형발전 및 교통체증해결을 위해 천문학적 국민혈세를 투입해 건설하는 지하 동부간선도로는 그 역할을 다할 수 없습니다.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2016-374호(2016.6.27.)의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도권광역급행철도B노선(인천송도~남양주마석)은 중량교와 중량철교 사이 중량천 지하를 횡단통과하여 지하 동부간선도로와 GTX B노선이 교차하게 되고, 중량IC(Ramp)도 설치하게 계획되어 있어 시설간 간섭이 될 수가 있는데도 관련된 기관(단체)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기본설계 중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고, 동부센트러빌 APT 뒤 설치 배연구(공사중 작업구활용, 공사후 배연구사용) 위치도 변경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검토보고요지(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개 요

- 본 청원은 현재 민간투자사업과 재정사업으로 추진 중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와 관련하여 ① 장안교IC(Ramp) 설치, ② 중랑교 부근 GTX-B노선과의 시설간 간섭 검토, ③ 휘경센트레빌 APT 뒤 배연구 설치 예정 위치변경을 요청하는 사안임(위치도 참조).



[그림] 위치도

- 참고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은 영동대로(경기고앞)부터 동부간선도로(월릉교)까지 지하 40~50m 깊이에 연장 10.1km의 민자터널과 지하 20~40m 깊이에 동부간선도로 송정동부터 당현4교까지 연장 11.4km 그리고 영동대로 학여울역부터 경기고앞까지 연장 2.1km의 재정터널을 건설하려는 것으로,

- 민자사업은 '19년 12월 말 시의회 동의를 얻어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20년 7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같은 해 9월부터 실시협약 협상에 착수하여 금년에는 실시협약 체결, 실시설계 완료 및 각종 인허가를 득하여 내년 하반기 착공 예정이며,
- 재정사업은 '19년 12월 타당성 조사, '20년 4월 투자심사 완료 후 같은 해 10월부터 기본설계에 착수하여 금년 4월 완료하고 실시설계에 착수할 예정임.
- 현재 민자터널은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재정터널은 민자 구간 개통과 연계하여 2028년 영동대로구간을 우선 개통하고 추후 2034년 동부간선도로 재정구간을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임.

[표] 사업개요

구 분	민자사업	재정사업
구 간	영동대로(경기고앞) ~ 동부간선도로(월릉교)	동부간선도로(송정동 ~ 당현4교) 영동대로 (학여울역 ~ 경기고앞)
규 모	터널 4차로(병렬), 10.1km	터널 4~6차로(병렬), 11.4km 터널 4차로(병렬), 2.1km
추정사업비	9,261억원	1조 9,839억원
개통예상연도	2028년	2028년 이후



■ 장안교IC(Ramp) 설치 요청에 대한 검토의견

- 동 요청 건은 건설 예정인 동부간선도로 지하도로에 직접 진출입이 가능한 램프 설치를 요청하는 것으로 재정터널구간의 기본설계 과정에서 해당 재정터널 장안IC 남측 진·출입로는 미설치하여도 우회할 수 있는 주변도로의 서비스 수준이 양호¹⁾한 것으로 분석되어 미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음.
- 그러나 그간 기존 장안IC를 통해 동부간선도로를 이용(㉠)하던 지역주민들(답십리, 장안동 등) 입장에서는 장안IC에서 직접 진출입이 불가능한 상태로 동부간선도로가 지하화될 경우 중랑 IC(Ramp)를 통해 동부간선 지하도로를 이용해야 하는데 (㉡)([그림] 참조),



[그림] 답십리, 장안동 등 인근 주민들 동부간선도로 접근 동선 변화

1) 동부간선도로(서비스수준 “D”), 동일로(서비스수준 “C”), 망우로(서비스수준 “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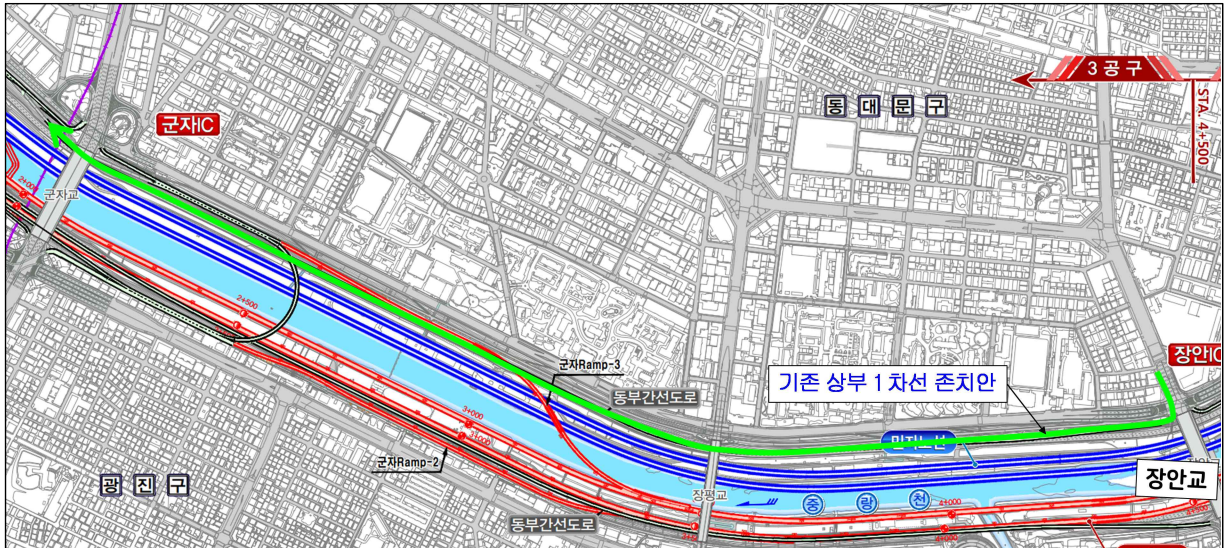
※ 도시지역 일반도로의 경우 설계 서비스 수준 “D”

- 중랑IC 접근을 위한 망우로 및 한천로가 현재도 출퇴근시간대에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추후 동부간선 지하도로 이용을 위한 추가 교통량 증가 시 교통소통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이에 청원인들은 동부간선 지하화 재정터널에 직접 진출입이 가능한 장안IC(Ramp) 설치를 요청하는 것이나 서울시는 진출입로 추가 설치 시 공사비만 약 1,6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표] 장안IC 남측 진출입로 터널 공사비 분석

구 분	연장(m)	공사비	비고
구조물	U-TYPE : 170m BOX : 500m	715억원	
터 널	540m	590억원	본선구간 분기부 및 가감속차로 포함
기 계		190억원	
전 기		95억원	
계		1,590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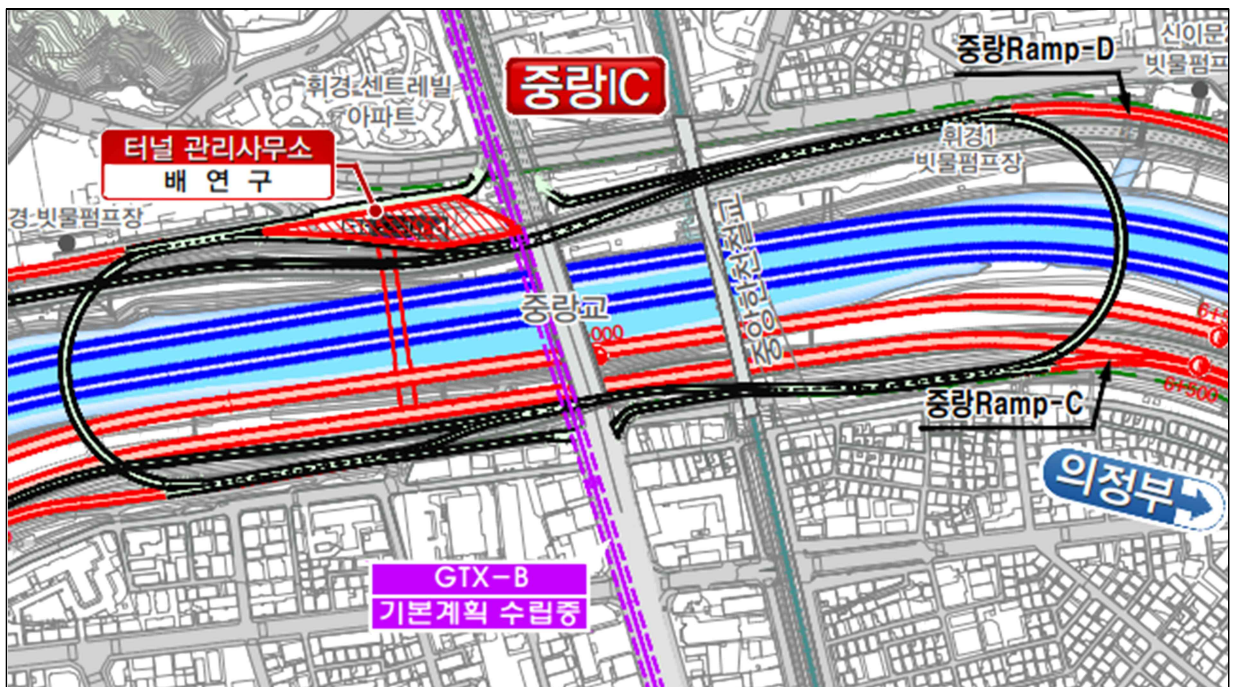
- 따라서 현재 서울시는 기존 지상 동부간선도로의 한 개 차선을 준치시켜 동부간선도로 남쪽방향으로의 직접 통행이 가능토록 하는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바, 이를 포함하여 다양한 대안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사료됨.



[그림] 기존 지상 동부간선도로 1차선 존치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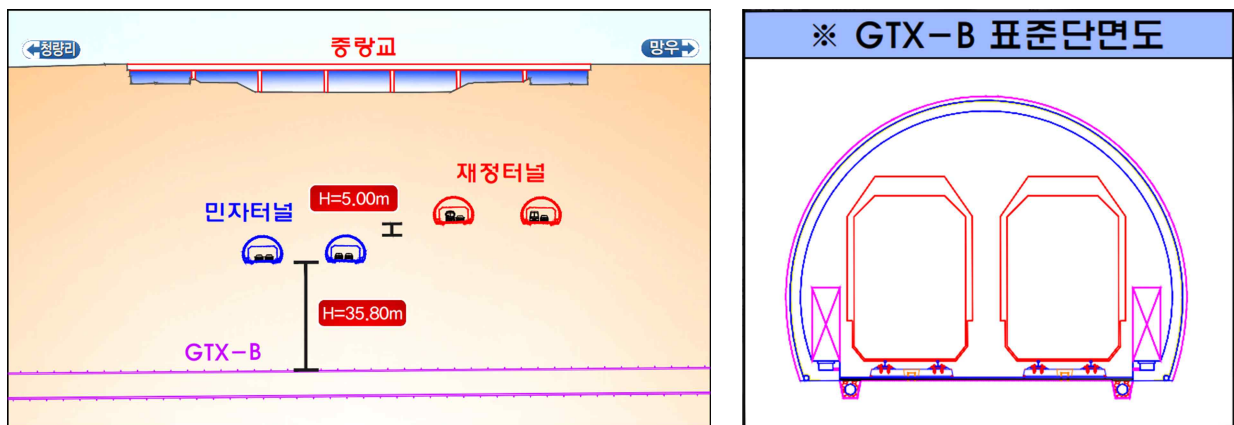
■ GTX-B 노선과의 시설 간 간섭 검토 요청에 대한 검토의견

- 동 건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GTX-B 노선이 중랑천 하저에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노선의 하부 횡단하는 것으로 계획 중인 데 해당 구간에서 시설 간 간섭을 우려해 검토를 요청한 것임.



[그림] GTX-B 노선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교차 구간

- 그러나 해당 구간에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자터널과 GTX-B 노선과는 35.8m의 단차가 확보되어 시설간 간섭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 이와 관련해 시는 GTX-B노선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일부구간을 횡단하게 됨에 따라 2021년 7월 이를 국토부에 통보하고 상호 시설이 간섭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요청하는 의견(도로계획과-10245, '21.7.29.)을 제출한 바 있음.



[그림] GTX-B 노선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노선 심도

- 따라서 시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관련 시설물 설치 및 안전관리 등 전반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이에 대한 주민설명을 통해 청원인들의 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하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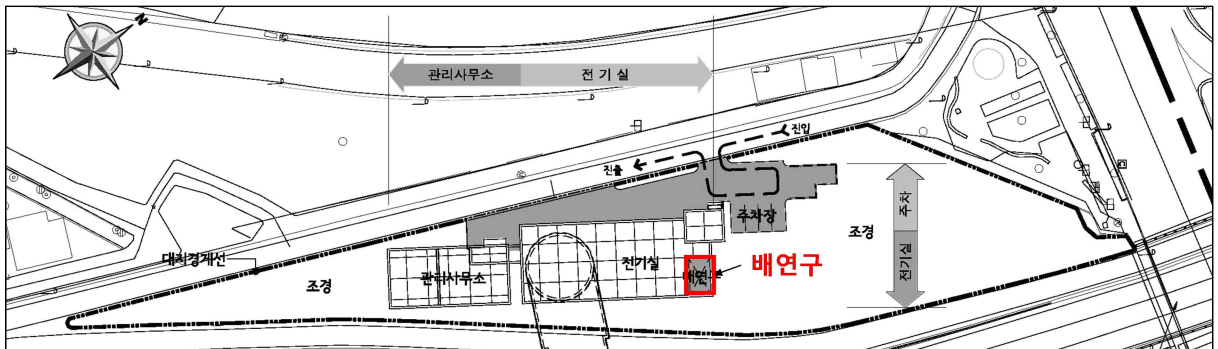
■ 배연구 위치 변경 요청에 대한 검토의견

- 동 건은 중랑IC 입구 부근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배연구”의 위치조정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배연구” 설치 위치와 가장 가깝게 인접한 휘경센트레빌아파트와는 62m 가량이격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



[그림] 터널관리사무소(배연구) 위치도

- 서울시 의견에 따르면, 설치 예정인 “배연구”는 환기구와 달리 평상시에는 사용하지 않는 시설로 터널 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만 연기를 배출하는 연기 배연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우려하는 것과 다르게 평상시 매연 등 대기오염물질은 배출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며,



[그림] 터널관리사무소(배연구) 평면 배치도

- 설치 예정지인 동대문구 회경동 8-4 일대는 현재 동대문구 공원녹지과가 작업인원 대기 및 자재적치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여기에 배연구를 포함한 관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변 녹지공간 조성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도시경관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설명임.

- 최근 들어 “배연구” 또는 “환기구” 설치가 주변 주민들에게는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 주민 설명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여겨지는바,
- 시는 조속한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주변 주민들과 더욱 소통하고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향후 공사과정에서 또 다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사전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짐.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해당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8. 심사결과 : 채택(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11. 의견서 : 별 첨

의 건 서

- ☐ **청원명 : 지하건설 동부간선도로 장안교IC(Ramp) 설치 등 청원**
- ☐ **처리하여야 할 기관 : 서울특별시(안전총괄실)**
- ☐ **처리결과 :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
- ☐ **채택의견 :**
 - **장안교 I/C(Ramp) 설치 요청 건:** 기존 장안 I/C를 통해 동부간선도로를 이용하던 지역주민들(답십리, 장안동 등)이 지하도로로 대체되면 장안I/C에서 직접 진출입이 불가능해지고 중랑I/C(Ramp)를 통해서만이 진출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주변도로 혼잡과 불편이 따를 것을 호소하는 사안으로, 서울시는 장안I/C 추가 설치시 추정공사비가 1,600억원에 달해 재정적 검토가 필요하고, 대안으로 기존 지상 동부간선도로의 한 개 차로를 존치(장안교~중랑IC 구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주민과의 협의를 통한 보다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임.
 - **GTX-B 노선과 시설 간 간섭 검토 요청 건:** 중랑교 하부로 GTX-B노선이 통과하게 됨에 따라 동부간선지하도로와 간섭되지 않도록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요청하는 사안으로, 서울시는 해당 구간에서 동부간선지하도로 민자터널과 GTX-B노선과는 35.8m의 충분한 단차가 확보되어 시설 간 간섭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나 국토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 배연구 위치 변경 요청 건: 휘경센트레빌아파트와 62m가량 이격되어 계획된 배연구에 대한 위치변경을 요청하는 사안으로, 서울시는 “배연구”는 “환기구”와 달리 터널 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만 연기를 배출하는 배연시설이기 때문에 평상시 매연 등 대기오염물질은 배출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나 이 역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이해와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청 원 요 지 서

접수번호	50		접수연월일	2022. 1. 14
청원인	주 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		
	성 명	김용상외 2,208명		
소개의원	김인호		소속위원회	
건 명	지하건설 동부간선도로 장안교IC(Ramp)설치 등 청원			
소관위원회		도시안전건설		
○ 서울시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를 위한 기본설계중이며, 현재 장안교 인접도로에서 지상 동부간선도로 진출입 장안교IC(Ramp)가 있어 이용 중 임에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기본설계 관련 주민설명회 내용 중에는 장안교IC(Ramp)설치가 없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그간 장안교 인접도로에서 동부간선도로로 이용했던 차량이 지하 건설된 동부간선도로 진출입을 위해 중랑IC(Ramp)이용시 현재 만성교통체증 상태인 망우로, 한천로의 출·퇴근시간대 교통마비상태 등 문제 발생 우려 또한 현 지상 중랑IC 입구에 계획되어 있는 배연구 설치 위치도 주변 아파트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재검토 필요 등 지하건설 동부간선도로 장안교IC Ramp(진·출입로)설치를 청원 함				